

# 선박 공격 수위 높이는 후티...‘호르무즈 우회’ 홍해 위태

바브엘만데브 해협서 이집트 화물선에 미사일 발사  
선원 4명 포함 총 6명 사망...후티에 의한 첫 인명피해

예멘의 친(親) 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선박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에너지 수송로인 홍해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예멘 정부 교통부는 11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던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 티하마호를 향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식량을 운송 중이던 선박이 후티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파키스탄인 3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선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구조대원 1명도 다쳤다”고 부연했다.

예멘 정부 해안경비대는 이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후티 반군 공격에 따른 사망자 수가 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사망자는 파키스탄 국적 선원 3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 예멘 정부측 국민저항군 병사 2명이다.

특히 후티 반군은 처음 선박에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뒤, 화재가 발생한 선박

에 구조대원들이 접근한 상황에서 2차 공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발생이 공식 확인된다면, 이는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후티의 상선 공격으로 인한 첫 인명 피해가 된다.

그러나 후티 측은 자신들의 공격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날 공격을 받은 화물선은 후티 반군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던 사우디 선박도 아니어서 홍해상 선박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았다.

이번 선박 공격은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홍해 항구도시 모카를 비롯한 예멘 내 여러 지역에 대해 후티 반군이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예멘군에 따

르면 지난주부터 이어진 후티의 공격으로 정부군과 민간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후티는 예멘 정부군과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그리고 홍해 내 사우디 선박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오고 있다.

홍해와 인근 항구를 겨냥한 후티 반군의 공세 강화는 2022년 휴전 이후 잦아 들었던 내전을 본격 재점화하는 동시에 걸프 지역에 집중됐던 중동 전쟁의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2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포위에 대한 보복이라며 홍해에서 사우디를 겨냥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콜롬비아 지진 현장서 구조된 생존자.

연합

콜롬비아 지진 ‘실종 3000명’ 구조 사투  
“씻” 생존자 찾으려 숨죽인 현장...손으로 잔해 파헤치며 작업

“조용히!”

지진이 강타한 콜롬비아 칼리에서 구조 봉사자들이 주먹을 치켜들고 외쳤다. 잔해에 깔린 생존자의 가느다란 목소리라도 듣기 위해서였다.

워싱턴포스트(WP), AP·AFP 통신 등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규모 7.4의 강진으로 콜롬비아 주요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도와 통신이 끊긴 가운데 이들

째 이어지고 있는 필사의 구조 현장을 전했다.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으로, 건물이 대거 무너지면서 ‘골든타임’ 안에 건물 잔해에 파묻힌 생존자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는 크레인 등 중장비와 열화상 감지 기능을 갖춘 무인기(드론)가 동원됐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손전등으로

불을 밝히며 일일이 잔해를 옮기는 모습도 자주 포착됐다.

구조대는 섬세 30도의 더위 속에서도 철근을 잘라내고 양동으로 잔해를 퍼내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갔다.

또 다른 피해 도시인 페레이라에서도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은 인간 피를 만 들어 건물 주변을 두르고 잔해 아래에서 들려오는 두드림이나 울음소리를 포착하기 위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서 있었다.

이곳을 찾은 CNN 기자는 도시가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사는 형제를 찾기 위해 220km를 달려 온 하이로 바르가스는 동생의 아파트 잔해 옆에 서서 망연자실했다.

그는 “동생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이라며 “주변의 잔해가 부드러우니 그를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희망이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데일리메일도 건물 잔해 속에서 생후 6개월 아기와 어머니가 구조됐으며 관련 사진을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실종자 수는 3000명을 넘겼고, 사망자 수도 254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